

21세기 우주시대를 선도하는 회원 여러분들에게...



연구회가 발족한지 10년,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된지도 6개월이 넘었습니다.

국내의 위성통신 및 우주산업의 발전에 매진하고 계시는 모든 회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무궁화 위성 3기, 아리랑 위성 1기, 우리별 위성 3기 등 총 7기의 위성을 가지고 있으며, 2005년까지 저궤도 위성용 발사체를 개발하며, 2015년에 세계 10위권 우주산업선진권 대열에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간의 성과와 중장기적인 우주계획의 수립은 통신위성·우주산업연구회의 선도적인 활동의 결과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21세기는 정보통신의 시대이며, 이런 정보통신의 혁명은 초고속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초고속 인터넷은 위성을 이용하여 진행될 것입니다. 전세계는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런 대열에서 낙오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주산업은 정보통신의 용도 외에도 다른 분야에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21세기를 우주과학의 시대라고 지칭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금년 9월에는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의 보완에 의해서 2015년까지 총 19기 이상의 위성을 발사하고, 2005년부터는 국내에서 직접 위성체를 발사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주산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노고와 분투가 각별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제는 IMF를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적 토대 위에서 우주산업을 시작한다는 것도 전망을 밝게 합니다.

우리 연구회는 산업체, 학계, 관련 연구기관의 밀접한 연계와 기술적 상호 증진을 목표로 하며, 국가의 우주산업정책과 방향을 제시해줘야 합니다. 산업체는 과잉 중복 투자를 피하며, 각자의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스스로의 기술을 발전시켜야 하겠으며, 학계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분석과 산업체에서 담당키 어려운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구가 계속 요구됩니다. 관계 기관은 산업체와 학계가 혼연일체가 되어 연구할 수 있는 터전을 계속 마련해줘야 하겠습니다.

세계는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한 국가의 흥망은 선진 기술의 확보 여부입니다. 선진 기술의 최첨단은 우주 기술이며, 우주 기술은 다양한 다른 산업에 여러가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재파급되는 효과를 가집니다. 우리 회원들의 기술은 이미 검증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항상 명심해야 하는 것은 기술의 변화에 열린 자세로 연구에 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좀더 경제적이고, 기술적으로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위성의 제작을 위해서 고민을 해야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21세기 우주시대를 열어가는 몇 안 되는 전문가임을 명심하시고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의 주도적인 우주시대 개척자가 되시기를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2000. 6.

부회장 최 규 홍